

朝鮮後期 書院의 院任 組織과 그 變化 (上)

- 現 慶尙南道 地域을 中心으로 -

姜 祥 澤*

「The Wonim(院任)'s Organization of the Sewon and the Change in the Late of ChoSun-Dynasty」, I

〈 目 次 〉

- I. 머리말
- II. 각 地域 書院의 院任 組織
 - 1. 德川書院 3. 勿溪書院
 - 2. 滌溪書院 4. 光山書院 5. 清溪書院
- III. 맺음말

I. 머리말

朝鮮後期の 정치구조는 朋黨政治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學緣을 기반으로 하는 朋黨政治는 官職의 수효가 한정된 상태에서는 그것을 충족시켜 주는 방도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유지 확산되어 나갈 수 있었다. 그런데 당시의 學緣은 우선 각지의 書院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되어 나갔다. 즉 書院은 學緣을 기반으로 향촌에서의 輿論을 주도하고 나아가서는 自派의 官界 진출을 도모하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에 地方勢力을 대표하였던 鄉村士林들은 政治의 主導權을 장악하기 위해서 宣祖대에 들어오면서부터는 書院을 중심으로 활약하게 되었다. 이에 書院은 조선후기에 들어와서 본격적인 발전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朝鮮後期の 政治 狀況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書院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접근을 할 수 있다. 즉 서원의 실체에 관한 연구는 그 建立 문제에서부터 組織, 經濟基盤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¹⁾.

*해양대학교 교양과정부 교수(한국사 전공)

1) 대표적인 서원관계 연구로는 다음의 것을 들 수 있다.

崔完基, 〈朝鮮朝 書院成立의 諸問題〉《韓國史論》 8, 1981

鄭萬祚, 〈朝鮮 書院의 成立過程〉《韓國史論》 8, 1981

閔丙河, 〈朝鮮書院의 經濟構造〉《大東文化研究》 5, 1968

李泰鎮, 〈士林과 書院〉《韓國史》 12, 1978

全用宇, 〈朝鮮朝 書院. 祠宇에 對한 一考察〉《湖西史學》 13, 1856

李樹煥, 〈朝鮮時代 書院의 內部組織〉《嶠南史學》 2輯, 1986

-----, 〈書院의 政治社會史의 考察〉《嶠南史學》 創刊號, 1985

이에 본고에서는 書院의 內部組織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院任組織의 파악을 통해서 서원의 구조적 변화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書院의 院任은 서원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조선후기의 朋黨政治 상황과 관련하여 정치,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다시 말해 조선후기 사회의 성격을 규정지을 수 있는 서원을 朋黨政治의 근원이라고 한다면, 서원을 構成하고 運營하는 실질적 主體였던 院任에 관한 연구는 서원 조직을 연구함에 있어 증시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다소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이 방면의 연구로서 書院의 內部組織 문제를 다룬 것으로서 주목할 만한 것은 李樹煥의 「朝鮮時代 書院의 內部組織」²⁾ 글이다. 이 연구는 現 慶尙北道地域의 書院을 중심으로 타지역 서원들을 黨色別로 대별하여 嶺南 南人系, 西人系, 北人系 書院으로 나누고, 그 내부 組織關係를 정리한 글이다. 그렇지만 과연 黨色에 따라서만 書院의 組織관계가 편성되었는지 하는 점에는 다소의 의문이 간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書院의 建立 문제를 朝鮮後期の 鄉權推移나 中央權力과의 미묘한 관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고 한다면, 慶尙右道, 慶尙左道, 또는 全羅道の 특정 지역을 포괄적으로 南人系, 北人系, 西人系 書院으로만 區分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행해진 다수의 書院研究에도 불구하고 현재 慶尙南道 地域의 書院에³⁾ 관한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연구가 없음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書院의 內部組織體系, 서원과 朋黨政治와의 관련성, 書院 組織의 變化, 鄉村士族들의 院任장악과 같은 문제들을 밝혀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現 慶尙南道 지역 書院들이 가지고 있었던 서원 조직의 특색이 규명되리라 생각한다.

慶尙右道(現 慶尙南道)의 서원도 타지역의 서원과 마찬가지로 兩班 상호간의 結束을 위한 장소, 혹은 兩班身分 維持 手段으로서 士林들의 정치적 입장을 반영하는 기구로서 확대되고 발전해 갔다고 한다면, 이를 실증하기 위해서는 서원 院任組織에 대한 광범위한 資料의 발굴과 수집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미흡하지만 발굴된 자료를 통하여 서원의 소재지를 중심으로 분류하고 나아가서 서원의 원입조직을 政治, 社會構造의 변화와 관련지어 보고자 한다.

調査된 地域은 陝川, 咸陽, 居昌, 宜寧, 咸安, 昌寧, 梁山, 蔚山, 密陽 등이다. 먼저 本稿에서는 이들 지역의 서원들을 地域別로 분할하여 서원의 내부조직 중에서 院任을 분석하고, 나아가 그 서원 組織의 변화가 中央權力의 변화와 어떻게 相應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조선후기 京畿지방의 鄉村社會의 구조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Ⅱ. 각 地域 書院의 院任組織

朝鮮後期 社會構造와 관련하여 書院의 內部 組織, 즉 院任, 院生, 職員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

2) 李樹煥, 〈앞의 논문〉 《嶠南史學》 2輯, 1986

3) 現 慶尙南道地域의 書院의 數는 《增補文獻備考》, 《列邑院宇事蹟》, 《嶠南誌》, 등에서 총괄해 보면 中宗以前부터 英祖年間에 이르기 까지 162個이며 賜額書院 數는 59個로 나타나고 있다.

다.⁴⁾ 서원의 내부 組織은 조선후기의 黨派 분립, 향촌사회에서의 서원의 役割 등과 관련되어 중시되었으며, 결국엔 서원의 人的인 構成에 대한 研究가 書院의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중요한 問題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에서는 書院의 內部組織은 朋黨政治의 展開와 함께 地域, 黨色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이해하였으며, 나아가 이를 院任의 資格, 院生의 性格 등과 관련지어서 이해하였다. 그리하여 서원을 西人系, 南人系, 北人系 書院으로 대별하고 이와 함께 書院 內部組織의 형태도 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書院 配享人物의 黨色과 관련하여 서원을 南人系, 西人系 書院으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現 慶南一圓의 書院들은 地域의 特色이나 鄉儒들의 黨色에 따라서만 書院의 형태가 嶺南 南人系 書院, 西人系 書院으로 확연히 구분되지 않는다.

그리고 慶南 일원의 서원들도 中央政治의 변화와 관련되고 있지만 타지역의 書院처럼 그렇게 민감한 反應은 보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18세기 이후에는 慶南 일원의 서원들도 상호 교류 관계를 확대하고 鄉村社會의 기반을 확고히 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지며, 中央權力의 변화에 따라 中央과의 긴밀한 紐帶를 模索하게 되면서 書院의 內部 組織이나 人的 構成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다시 말해 이러한 서원의 組織問題는 조선후기의 政治 社會構造의 변화, 즉 仁祖反正, 甲戌換局 등 붕당정치 of 발달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역사적 사건들을 거치면서 대단히 많은 변화를 가지게 된 것이다.

우선 자료가 파악된 慶尙道(現 慶尙南道) 일원의 서원들이 가지는 院任 組織을 총괄적으로 <表 1>로써 나타내고, <표 2>에서는 타지역의 院任組織의 실태를 파악하여 나타냄으로써 원입조직이 地域的으로 어떠한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표 1> 現 慶尙南道 地域 書院의 院任組織 (書院 建立 年代順)

地名	書院名	建立年代	資料名	院任組織의 形態
咸陽	濫溪書院	明宗 1560	經任案(上,下)	院長, 有司-院貳, 京有司,
草溪	淸溪書院	明宗 1564	院任案	院長(1人), 有司(2人)
密陽	禮林書院	明宗 1567	書院誌	鄉院長(1人), 都有司, 掌義
山淸	德川書院	宣祖 1576	院任錄(1,2 卷)	院長(1人), 有司(2人)
咸安	德淵書院	孝宗 1651	都有司案, 院錄	院長, 都有司, 掌義
河東	宗川書院	肅宗 1677	尋院錄	院長, 有司
陽山	松潭書院	肅宗 1696	書院誌, 松潭實記	院長, 晉紳有司, 章甫有司
蔚山	鷗江書院	肅宗 1678	院任錄, 考往錄	院長, 有司, 典穀
昌寧	勿溪書院	肅宗 1712	院長案, 院任案	院長, 有司
蔚山 (彦陽)	盤龜書院	"	盤龜書院 復原碑文 複寫本	院長, 有司, 典穀有司
蔚山	鵝山書院	英祖 1745	執事錄, 有生案	院長, 有司
宜寧	泰巖書院	正祖 1789	尋院錄	院長, 有司
昌寧	光山書院	正祖 1795	任案錄 1,2卷	院長, 有司
宜寧	宜陽書院	哲宗 1861	學家亭 契案	院長, 有司

4) 李樹煥, <앞의 論文> 참조.

〈표 2〉 〈現 慶尙北道, 全羅道 地域의 書院〉

地 名	書院名	建立年代	院任組織 關係 資料	院任組織의 形態	
現 慶尙北道	順 興	紹修書院	嘉靖任寅年	紹修書院贈錄, 列邑院宇	院長 1人
	榮 州	伊山書院	嘉靖戊午年	退溪全書 下 (雜著)	上有司 1人
	慶 州	西岳書院	嘉靖申酉年	私撰邑志, 院任錄	院長 1人, 有司1人
	禮 安	陶山書院	萬曆甲戌年	陶山書院 院任案	上有司 1人,
	星 洲	川谷書院	嘉靖戊午年	川谷書院 院規	上有司 1人
	安 東	屏山書院	萬曆癸丑年	屏山書院 院規	上, 下 有司
	永 川	臨臯書院	嘉靖乙卯年	本院 典穀什物錄	院長 1人
全 羅 道	羅 州	月井書院	萬曆庚子年	書院贈錄	院長1, 院貳2.
	羅 州	景賢書院	萬曆癸未年	景賢書院誌	院長1, 掌義1.
	羅 州	眉泉書院	康熙壬申	眉泉書院誌 坤卷(7)	院長, 院貳, 都有司
蔡濟恭 院長(1778-1799)掌義14, 章甫有司2, 嶺南				院長1, 院貳2, 晉紳 都有司1, 道內晉紳	

위 〈표 1〉과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書院의 성격은 建立背景과 配享人物에 따라 南人系, 西人系, 北人系로 분류될 수 있지만 서원의 組織은 黨色과 관계없이 地域에 따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서원의 內部組織인 院任組織이 기존의 연구성과와 같이 嶺南 南人系와 北人系는 「院長-有司」體制, 西人系는 「院長-掌義-有司」체제로 편성 되었다고만 볼 수 없다는 의문을 제기한 全用宇의⁵⁾ 입장에 공감하면서 서원 組織의 일반적인 형태를 考察해 보고자 한다.

먼저 타 지역의 서원과 경상남도 지역의 서원과 비교를 하기 위해 〈표 2〉에 나타난 慶尙北道의 書院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대부분 嶺南 南人系 書院으로서 분류되며 그 院任組織은 「院長-有司」의 형태를 일반적으로 취하고 있다.

이제 하나 하나의 서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嶺南 南人系의 대표적 서원인 紹修書院은 白雲洞書院 院規에 나타난 「別擇業文信者一人 爲院長 又擇一人爲院貳 其主院事」⁶⁾ 라는 기록을 통해서 書院의 조직이 院長, 院貳 제도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全羅道 羅州地域 西人系 書院인 月井書院은 院任組織이⁷⁾ 院長(1) 院貳(2) 章甫有司(6)의 형태였다.

5) 全用宇, 〈華陽書院과 萬東廟에 對한 一考察〉《湖西史學》 18輯, 1990 참조

6) 《列邑院宇事蹟》 白雲洞書院規를 참조

7) 이에 대해서는 鄭勝謨, 〈書院, 祠宇 및 鄕校組織과 地域社會體系〉《泰東古典研究》 5, 1990, p. 23 참조

물론 嶺南 南人系 서원으로 분류된 書院들도 일부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院長-有司」 체제에서 변화해 나갔을 것이지만, 이는 원임 조직에 있어 다양한 형태를 보여주는 全羅道 지역만큼 그렇게 큰 變化를 가져다 주지는 않았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全羅道 德陽書院 院誌에 「院貳는 道內 士大夫 중에서 賢明한 자로 選定된다」라고⁸⁾ 나타나 있으며, 역시 전라도 羅州地域의 南人系 대표서원인 眉泉書院도 1714년 이후 院長, 院貳, 都有司로 院任組織이⁹⁾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院貳는 院長의 副望에 오른 자로 하여 院長을 補佐하고 유고시에는 院長을 代理토록 규정하고 있다.¹⁰⁾ 이러한 院貳制의 採擇은 全羅道地域의 西人系 書院인 筆巖書院이나¹¹⁾ 泰仁의 武成書院 등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주목되는 사실로는 西人系 書院인 華陽書院이나¹²⁾ 道峰書院의¹³⁾ 경우 副院長 제도가 있어 왔는데, 이는 院貳의 성격이 院任 組織 내에서 변화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호남지역 書院의 內部組織은 黨色에 따라 규격화 된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이나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書院의 組織과 鄕校의 組織을¹⁴⁾ 비교하여 살펴보면, 鄕校는 行政體系로서 管轄 地域이 미리 정해져 있는 組織이었다면 書院은 官僚組織에 의한 制約이 없음을 특색으로 하기 때문에 체제의 構成이나 運營을 書院自體, 즉 配享人物의 성격이나 書院建立의 主體가 가지는 性格 또는 시대적 현상에 따라 自律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가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現 慶尙南道 일원의 書院이 가지고 있는 院任組織의 특징은 黨色에 따라 규격화된 「院長-有司」 체제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원 자체의 운영을 위해 다양한 유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경상남도 지역의 서원 원임조직과 변화를 개별 서원들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德川書院

德川 濼溪書院은 조선시대에 慶尙右道の 代表的인 北人系 書院으로서 院任組織은 「院長-有司」 체제였다고 한다.¹⁵⁾ 특히 주목되는 점은 濼溪, 德川書院의 院任組織은 院規가 伊山書院 院規를¹⁶⁾ 그대로 모방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伊山書院 院規는 退溪가 書院教育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지금의 慶北 永州에 있는 伊山書院(宣祖 癸酉; 1573)의 院規이다. 그런데 기존의 연구에서 지적된 부분은 院任組織에 관한 것으로 「院有司 以近居廉幹品官二人差定 又擇儒士 識事理有行義 衆所推服者一人 爲上有司 皆二年相

8) 《德陽院誌》 1937 간행, 節目 참조 (國立中央圖書館 所藏)

9) 1714年後 院任組織(1778-1799)은 蔡濟恭이 院長을 지낸 以後 安定된다.

10) 鄭淳睦, 《韓國書院教育制度研究》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1989

11) 《筆巖書院誌》 卷1, 舊院規 참조

12) 《華陽誌》 卷5, 書院事實 참조

13) 李樹煥, 〈앞의 論文〉 P.101 참조

14) 姜大敏, 〈朝鮮後期 嶺南地方의 鄕校研究〉 釜山大學校 博士學位論文, 1989 참조

15) 李樹煥, 〈앞의 論文〉 참조

16) 李樹煥, 〈앞의 論文〉 P.17 참조

遞」¹⁷⁾ 라는 부분이며, 이는 書院의 有司와 上有司 선출과 上有司의 任期를 규정한 내용이다.

그런데 濼溪書院이 明宗 7년(1560)에 建立되었고, 德川書院이 宣祖 9년(1576)에 建立되었다면 시기적으로 伊山書院 院規를 모방할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 간다.

우선 德川書院(宣祖 丙子; 1576 建立, 光海君 乙酉; 1609 賜額)은 南冥先生을 봉사키 위해 南冥門徒와 鄕士林에 의해 建立된 서원이다. 德川書院의 경우 宣祖 年間의 院任組織은 유실되어 없으며, 다만 英祖 年間부터 哲宗代까지의 院任案¹⁸⁾ 2卷이 德川書院에 보관되어 있다. <德川書院誌>에 나타난 서원의 建立過程에서¹⁹⁾ 初期의 院長으로 河覺濟, 陳克敬, 李澍 등이 보이며 有司로서는 鄭大淳, 孫均, 柳慶一, 河公孝 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院任의 형태는[院長-有司] 체제로 정립되어 나타난다고 보아야겠으며, 院長은 「一鄕之長」의 성격을 가진 生員, 進士, 幼學 등의 鄕內人士로 임명되고 있었다고 보아진다. 이런 사실은 南冥學派의 總本山으로서 鄕村 사회에 있어서의 公論의 조정과 수렴 등이 덕천서원을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었으며, 덕천서원이 지방 儒林들의 활동 근거지가 되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그런데 宣祖 22年(1589)에 발생한 己丑獄으로 南冥문도의 대표적 인물인 崔永慶의 連累 문제가 제기 되었으며, 결국에는 이 때문에 南冥문도와 退溪문도가 이해관계를 달리하게 되어 南人과 北人으로 당색까지 달리하게 되었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 후 光海朝 때는 鄭仁弘을 주축으로 한 南冥 문도들이 慶尙右道의 德川書院, 濼溪書院을 중심으로 北人政權의 주장을 옹호하는 輿論의 발상지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보아야겠다.

仁祖反正後 鄭仁弘의 몰락은 德川書院이 가지는 晉州圈을 중심으로 한 鄕村社會의 主導權에 새로운 변화를 초래했으며, 특히 戊申亂後 老論政權의 등장은 그 동안처럼 南冥과 鄭仁弘을 중심으로 한 南冥 追從 鄕士林만으로는 獨自의인 세력을 유지할 수 없어 老論 세력과의 연결을 시도하게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德川書院 院任錄의 변화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德川書院이 서원의 院任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가지는 특색은 타 세력과의 연결을 모색해 가는 과정에서도 院任組織의 형태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점은 같은 晉州圈의 鄕村秩序를 主導하였던 濼溪書院이 西人系, 南人系, 老論系 세력과 연결을 모색할 때마다 院任構造의 변모를 가져왔음과 비교하여 보면 특이하다고 하겠다.

한편 嶺南 南人系의 대표적 서원인 眉泉書院의 경우 蔡濟恭이 원장직을 맡은 20年間(1778-1799) 서원의 組織 규모가 확대 개편되어 院長 1人, 院貳 2人, 晉紳掌義 14人, 章甫有司 2人, 嶺南都有司 1人, 別有司 1人, 道內晉紳 3人, 本道齋長 1人, 掌義 2人, 色長 1人, 養儒齋有司 2人으로 구성되고²⁰⁾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德川書院은 蔡濟恭이 判書에서 領議政을 거치는 17年間(1784-1801) 원장직을 역임하지만 원

17) <退溪全書> 上, 伊山書院記 참조

18) <德川書院 院任案> 1卷, 2卷(德川書院 所藏)

19) <德川書院誌>, <慶尙南道 輿地集成>, 晉陽誌 卷2 참조

20) 鄭勝謨, <앞의 論文> P.162 참조

입조직에는 어떠한 변화도 보이지 않는 것이 특색이다. 이는 <德川書院 院任錄>에서 볼 수 있듯이 英祖-哲宗 年間に 대부분의 院長이 중앙에 거주하면서 원장직을 담당했을 뿐 실제 서원의 運營과 鄉村社會 질서의 主導權은 鄉士林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말해주는 것이다.²¹⁾ 또 德川書院의 有司는 晉州人과 丹城人의 범주를 벗어난 일이 없고 평균 6個月에서 1年 사이에 遞任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잘 알 수가 있다.

<德川書院 院任錄>에 나타나는 居京院長 <李之億(判書)>, <洪名漢(判書)>, <蔡濟恭(領議政)>, <李益運(判書)>, <韓致應(判書)>, <洪時濟(參判)>, <洪命周(參判)> 등은 모두 老論 時派에 속하고 있다.²²⁾ 이는 仁祖反正 이후 在地的 기반이 약하던 北人系列을 포섭하여 鄉村士族을 견제하고, 나아가 執權 老論 勢力을 부식시키려는 입장이 함께 하고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2. 漣溪書院

漣溪書院은 明宗 7年(1552)에 本郡 儒學들의 建議로 건립이 추진되다가 明宗 16年(1561)에 완성되었으며, 鄭汝昌을 追享하는 書院이다.

이 서원의 初代 院長은 書院創設에 주도적 역할을 한 本郡 儒學인 進士 姜翼이 추대되었다.²³⁾ 漣溪書院의 院任組織은 초기에는 德川書院과 같이 「院長-有司」 체제로 院長 1人, 有司 1人, 典穀有司 2人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그 후 仁祖反政 以前까지(明宗 22年-光海 3年)도 원장은 「一鄉之長」의 성격에 따라 南冥, 鄭仁弘의 文人이었던 鄉內人士 姜翼, 鄭摯, 盧士豫, 盧士尙, 河應圖 등이 院長이 되었다.²⁴⁾

그런데 漣溪書院의 院任組織은 德川書院과 學緣이나 地緣을 거의 같이 하면서도 시대적 상황에 따라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음이 특색이다. 이는 德川書院의 追享人物과 漣溪書院의 追享人物이 가지는 성격이 다를지 모르지만 書院 建立 및 運營 등이 南冥 鄭仁弘 문도에 의해 주관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己丑獄이나 仁祖反正을 거치면서 생존을 하기 위한 자구책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환기에 접하면서도 德川書院은 원입조직의 변화를 거의 찾아 볼 수 없었지만, 漣溪書院의 院任組織은 중앙정계의 변화와 함께 西人系, 老論系, 嶺南 南人系 서원의²⁵⁾ 院任조직을 시대순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21) <德川書院 院任案> (德川書院 소장) 참조

22) <德川書院 院任案> 을 참조

李樹煥은 앞의 論文에서 英祖以後의 居京院長들을 親南人系로 分類하고 있다.

23) 漣溪書院 經任案 經任案序 참조

「竹軒鄭君以病將遞 豫爲代鄉之長老」

「姜翼除昭格署參奉遞任」

「盧裸除司圃署別坐遞任」

「盧士訓除順凌參奉遞」라 하여 初期書院의 院長은 現職일 경우 遞任하고 있다.

24) <漣溪書院 經任案> (明宗 16年-高宗 22年) 全 8卷 참조

25) <漣溪書院 經任案> 참조

李樹煥, <朝鮮時代 書院의 人的構成과 經濟的基盤> 嶺南大學校博士學位論文 1990, P.90 참조

瀋溪書院의 院任組織은 서원 자체에서 보관하고 있는 經任案을²⁶⁾ 통해 <表 3>과 같이 그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표 3> <瀋溪書院 經任案-院任組織의 變化-> (중복된 곳은 정치적 변화 시기)

年代	院長	職 役	有 司	典穀有司	院任組織의 變化			
明宗 16年 (1561)	姜 翼	進 士	盧 士 豫	梁 弘 澤 林 希 秀				
宣祖 17年 (1584)	盧 士 豫	幼 學	禹 致 績	許 賓 悌 河 悌				
			院 貳		(1)院貳 - 己丑 8月 20日 有司制 대신 院貳制로 轉換 趙安性이 初期 院貳로 나타			
宣祖 22年 (1589)	河 孟 寶	幼 學	趙 安 性	林 澤 民 柳 夢 龍				
			都 有 司	有 司	(2)有司-典穀有司 體制에서 都 有 司-有 司 體制로 變動 * 光海君3年後의 記錄과			
仁祖 25年 (1592)	朴 崇 圭	生 員	梁 道 濟	3人				
				齋 有 司				
英祖 20年 (1744)	李 緯	判 書	梁 廷 輔	5人	(3)院長에 처음으로 中央高級 官僚 赴任			
	山 長			別 有 司				
正祖 23年 (1799)	宋 煥 箕	師 傅	鄭 鎮 望	1人	(4)己未秋享에 院長 職名이 山長으로 나타남			
			京有司	鄉 有 司				
純祖 20年 (1800)	南 公 撤	判 書	李 晦 淵	2人	(5)京有司와 鄉有司 制度 京有司로李晦淵(郡守)赴任			
純祖 32年 (1832)	南 公 撤	領 相						
憲宗 9年 (1843)	趙 寅 永	領 議 政	李 晦 淵	都 有 司	一有司	二有司		
				姜 尋 文	盧 光 在	鄭 東 喬		
					(7)憲宗 9年 都 有 司 職役이 郡守로 나타남며 一有司, 二有 司는 幼學 進士로 나타남다.			
哲宗 7年 (1856)	金 奭 均	郡 守	8)哲宗丙辰 秋享부터 高宗 1885년까지 金奭均이 山 長으로 赴任한 후 11名의 郡守가 山長이 되고있다.					

26) <瀋溪書院 經任案> 참조

여기서 살펴보면 時代에 따라 院任組織은 西人系書院이라 分類된 書院들과 같은 變化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3〉에 나타난 濼溪書院의 院任組織의 變化는 宣祖 39年까지는 鄉內인사(進士, 幼學)를 중심으로 서원의 經營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원장이 現職과 연결되면 遞任 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위 〈표 3〉의 (1)에서 宣祖 22(1589)年 河孟寶(幼學)가 院長으로 취임하면서 有司가 院貳로 바뀌었으며, 忠義衛였던 趙安性이 5年間 그 職을 수행하면서부터는 院任構造는 [院貳-典穀有司] 제도로 운영되었다.

이 院貳制度는 일반적으로 西人系 系統의 院任組織으로 나타나고 있다. 顯宗 9年(1669)에 朴淳, 鄭撤 등 幾湖學派 5位를 配享하였던 月井書院은²⁷⁾ 初代 院長으로 宋時烈, 宋俊吉과 그들의 文人으로 肅宗의 장인이었던 閔維重(1630-1687)이었으며, 院貳는 南九萬이 추대되고 있다.

또 西人系 書院으로 분류될 수 있는 筆巖書院과²⁸⁾ 考巖書院도²⁹⁾ 「院長-院貳」制度를 두고 있다. 濼溪書院의 경우 宣祖 22-27年(1589-1594)까지는 本郡 鄉士林에 의해서 서원의 經營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變化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할 수 없다. 단지 이 시기는 己丑獄과 壬辰亂이란 커다란 사건이 겹쳐 있었기 때문에 서원의 內部的인 문제는 己丑獄이나 壬亂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構造의 變化일 것이라 생각된다.

위 〈표 3〉의 (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仁祖 25年-肅宗 2年(1647-1676)에는 院任組織이 「有司-典穀有司」體制에서 「都有司-有司」體制로 변동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南冥-鄭仁弘을 중심으로 했던 北人政權이 몰락하는 仁祖反正後에 나타난 현상이다. 남계서원은 德川書院과는 달리 仁祖 5年(1627)부터 英祖 16年(1740)까지 「一鄉之長」의 院長제를 고수하지 않고 本郡 郡守가 8名이나 院長으로 부임하였으며 副護軍과 縣監도 院長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濼溪書院이 光海朝까지³⁰⁾ 유지되었던 독립적이고 독자적인 鄉士林들의 自治機構로서의 역할과 書院經營의 문제가 상당히 위축된 상태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파악될 수 있다.

〈표 3〉의 (3)에 나타나듯이 英祖 20年부터 院長으로 西人系(老論) 중앙 고급관료가 부임하고 있음을 본다면 肅宗 때의 기록이 없다 해도 이때에는 아마 南人系의 정치권과 연결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면모는 經任案에 나타난 기록을 통해 類推해 볼 수 있는데 英祖 20年(1744) 李滄(判書)가 院長으로 부임하여 「都有司-齋有司」체제로 變換되고 있고, 英祖 23年(1747) 兪拓基(判府使), 英祖 46年(1770) 金致仁(領議政), 正祖 19年(1795), 李敏輔(判書), 正祖 23年(1799), 宋煥箕(師傅), 純祖 8年(1808) 南公撤(判書), 憲宗 7年(1841) 趙寅永(領議政) 등의 老論系 중앙고관들이 院長(山長)職을 맡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仁祖反正後 鄭仁弘을 주축으로 했던 慶尙右道의 士林들은 政界진출이 용이하지 않았으

27) 鄭勝謨, 〈앞의 論文〉 P.161 참조

28) 《筆巖書院誌》 卷1 舊院規 참조

29) 《考巖書院誌》 卷3 (國立中央圖書館 所藏) 참조

30) 《濼溪書院 經任案》은 光海君 3年後의 記錄과 肅宗 2年以後의 記錄이 없다. 李樹煥, 위의 〈學位 論文〉 P.90에서는 光海君 3年에서 肅宗 11年까지의 記錄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 것은 筆者가 所有하고 있는 經任案과 다소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며, 특히 戊申亂後의 老論 政權下에서는 더욱 더 서원의 존립기반마저도 위태로운 실상에서 살아남기 위한 自救策으로 타 세력과의 연결을 시도한 것은 必然的인 것이었다. 한편 이는 중앙정계에서 士林의 公論이 존중되고, 그에 따라 정치가 좌우되게 됨에 따라 老小 各派가 自派에게 유리한 輿論조성을 위해 지방세력을 서로 자파에 포섭하려는 노력이 급증하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겠다.

특히 朴文守와 趙賢明 같은 小論系 人物들이 嶺南監事로 파견됨을 기회로 在鄉의 서원을 禮訪, 交遊를 터고³¹⁾ 상호 연결을 도모하였다는 사실은 각지역 서원의 원장 중복 재임과 연결해서 설명될 수 있다. 한 예로 老論系書院인 筆巖書院의³²⁾ 院長으로 俞拓基 (1752-1768)가 재임하였으며, 考巖書院에도³³⁾ 1747년 俞拓基가 院長으로 있었으며, 慶尙道 尙州의 興巖書院에도³⁴⁾ 俞拓基가 원장으로 재임하였다는 사실과, 또 宋煥箕도 1793년 慶尙道의 興巖書院과 全羅道 順天의 謙川書院에서³⁵⁾ 1798-1805년 사이에 원장으로 재직하였음은 仁祖反正後 英祖-憲宗까지의 시대적 상황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濼溪書院이 老論系列과 연결되면서 院任構造도 西人系 서원형태로 변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표 3>의 (4)에서 宋煥箕(1728-1807)가³⁶⁾ 1799년에 원장으로 부임하면서 山長으로 職名이 표기되고 있으며, <표 3>의 (5)에서 南公澈(1760-1840)이³⁷⁾ 원장으로 재임할 당시 純祖 20年(1820)에 京有司와 鄉有司制가 생겨나고, 京有司로 李晦淵(郡守)이 赴任하고 있음이 기록으로 나타난다. 이는 19세기로 들어오면서 기존의 서원들이 가지고 있었던 鄉村儒林 사회의 공동체적 성격이나 鄉村自治의 성격이 감소됨에 따라 居京院長 체제 아래서 중앙 및 지방과의 긴밀한 관계를 모색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보아진다.

이와 같은 현상은 老論系 書院에서는 보편적 현상으로 나타났다. 全羅道 泰仁의 武城書院, 正邑의 考巖書院, 京畿道 陽州의 石室書院, 魯岡書院³⁸⁾ 등이 모두 京有司制를 채택하고 있음을 통해 쉽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표 3>의 (6)에는 純祖 32年(1832, 山長 南公澈)부터 院任構造가 「山長 京有司 都有司 一有司 二有司制」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여기서는 鄉有司가 都有司로 轉換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표 3>의 (7)에서는 憲宗 9年(1843)에 領議政 趙寅永이 山長으로 부임하면서 都有司의 職役이 郡守로 나타나며 一有司, 二有司는 幼學, 進士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山長이 居京하고 있으며 京有司가 現

31) 鄭萬祚, <英祖14年の 安東 金尙憲書院建立是非> <韓國學研究> 1輯, P.5 참조

32) <筆巖書院誌> 卷1, 舊院規 참조

33) <考巖書院誌> 卷3, (國立中央圖書館 所藏) 참조

34) <興巖書院 事實錄> (國立中央圖書館 所藏) 참조

35) 謙川書院 執綱案 참조; 鄭勝謨, 앞의 論文 上, P.181 참조

36) 宋煥箕은 1728(英祖4)에서 1807(純祖7) 本貫: 은진. 宋時烈의 5代孫 1779(正祖3年)년에 經筵官, 1795(正祖19)년에 吏曹參議, 1796(正祖20)년에 禮曹判書를 역임했다.

37) 南公澈은 1760(英祖 36)년에서 1804(憲宗 6)년까지 살았으며 本貫은 宜寧이다. 그는 1784(正祖 8)년 任實縣監, 1817년 右議政, 1821년 左議政, 1823년 領議政을 역임하였다.

38) 李樹煥, <앞의 學位論文> P.81-89 참조

職으로 中央과의 연결을 도모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원의 실질적 運營을 할 수 있는 職任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원래 都有司는 院中의 大小事를 監檢하는 職責이라는³⁹⁾ 것으로도 이러한 점은 이해가 된다. 憲宗 9年 後半부터 都有司의 職責이 郡守로 나타난다는 것은 地方官僚에 의해 서원의 실질적인 運營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3〉의 (8)에서 哲宗 7年(1856)에서 高宗 22年까지 都有司 全奭均(郡守)이 山長으로 취임하면서부터 11名의 郡守가 山長이 되고 있음도 〈표 3〉의 (7)의 내용이 가지는 의미로 파악될 수 있다. 또한 高宗 8年(1871)부터의 현상은 大院君의 書院毀撤과 관련하여 각 지역의 서원 院長(山長)은 地方官이 兼任하도록 규정되었던 현상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보아야겠다.

이렇게 볼 때 濼溪書院의 院任組織과 德川書院의 院任組織은 學緣, 地緣을 함께 하고 같은 시대를 지나 오면서도 그 변화의 형태에서는 類似點을 찾을 수가 없다고 하겠다. 이는 두 서원의 출입인사들의 성격과 관련하여 나타난 현상일 것이다.

德川書院은 南冥과 崔永慶을 配享하는 서원으로서 인조반정 이후에 나타나는 시대적 변화를 濼溪書院과 함께 하고, 또 居京의 親南人系 老論人事가 院長職을 역임해 나갔음에도 院任組織의 構造는 시종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濼溪書院의 경우 院任組織의 형태는 거의 西人系 書院의 변화와 유사하게 변모해 갔음을 볼 수가 있다. 이는 濼溪書院의 조직과 경영이 지역 사족들간의 이해관계 뿐만 아니라 중앙정치 권력과 당파성에 좌우되었음을 보여주는 양상이라 하겠다.

3. 勿溪書院

勿溪書院은 肅宗 38年(1712) 成松國(高麗 侍中)을 追享하기 위해 昌寧郡 大也面 旺山에 世德祠를 建立하였다가 英祖 5年(1729)에 勿溪書院으로 개칭되었다.⁴⁰⁾ 勿溪書院은 大院君의 書院 毀撤以後 書院建物은 消失되었으나, 지금 成氏門中에서 昌寧郡 大也面 牟山里에 原形을 복구하고 있다.

勿溪書院은 鄉村儒林들이 主體가 되어 건립한 鄉, 道の 書院과는 달리 門中이 주체가 되어 건립한 대표적인 門中書院이다. 이것은 朋黨政治가 절정에 이르는 朝鮮後期의 상황에서 건립된 서원들의 대부분이 그 조직과 經營에 地域士族들간의 利害관계 뿐만 아니라 중앙정치권의 黨派性에 의해 院任組織 및 書院의 經營형태가 좌우되고 있던 실정과는 다른 면모이다.

이처럼 조선후기의 서원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양상과 달리 勿溪書院은 組織結成이 자유롭고 人的交換이 成氏門中에 한정되어 있어 院任組織도 「院長-有司」 체제를 갖춘 英祖 5年(1729)부터 高宗 5年(1868)까지에 걸쳐 中央政治의 변화와는 전혀 관계없이 院任組織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데서 勿

39) 鄭淳睦. <앞의 冊> P.189 참조

40) <成侍中孝行錄> (成氏門中所藏)

「先生墓下 瓶建祠宇之議 出自庚寅而事力 不建仍循至今矣 崇禎後壬辰 建祠於麥山之 北勿溪之上 己酉冬 尊享先生以彰其孝」

溪書院의 성격을 이해할 수가 있다.

昌寧의 土姓은 張, 成, 曹, 河, 表氏이며, 이들 토성들은 高麗後期부터 吏族 또는 士族으로 나타나며 成氏와 趙氏는 15世紀에 鉅族으로 발전하였다.⁴¹⁾ 특히 成氏는 昌寧 戶長 成仁輔를 始祖로 하며 이후 路上, 路下派로⁴²⁾ 나누어져 거대한 씨족을 형성하였고 朝鮮初期에 이르러 士族으로 발전하였다. 朝鮮後期에 들어와서 成仁輔의 子 成松園(高麗侍中)의 孝性을 기리기 위하여 成換, 成龜世, 成萬齡 등이 중심이 되어 世德祠를 創建하였다가⁴³⁾ 그 후 勿溪書院으로 改稱했으며, 이때 主壁 成松園 외 7先生을 配享하여 春秋로 齋享하다가 勿溪書院 院規에⁴⁴⁾ 따라 11先生이 享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勿溪書院이 창건되는 肅宗-英祖年間은 書院, 祠宇의 남설에 대한 폐해가 지적되는⁴⁵⁾ 시기였지만, 勿溪書院은 문중서원이 가질 수 있는 특색으로 중앙정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勿溪書院에 配享된 인물로서 朝鮮後期에 활동한 상황을 파악해 보면, 同一한 後孫관계라 해도 黨色과 무관하거나 또는 黨色을 달리하여 나타나기도 함을 볼 수가 있다. 成運(報恩), 成悌元(公州)은 曹植, 徐敬德과 교류하여 北人系列의 당색을 나타내고 있으며, 成守琮(坡州) 父子와, 成守琛(坡州), 成潭(坡州) 등은 趙光祖의 학통을 이어 기호지방의 사람파로 활동하면서 西人系列의 당색을 나타내고 있다.⁴⁶⁾ 그렇지만 配享人物이 가지는 뚜렷한 黨色이라 해도 기본적으로는 後孫들에 의한 門中書院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肅宗-英祖年間에 있어 서원의 존립과 관계된 다양한 변화에도 큰 충격없이 서원이 지속될 수 있었다고 본다.

勿溪書院이 소장하고 있는 院長案, 院任案을⁴⁷⁾ 통해 院任組織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院長案은 京院長과 鄕院長을 구분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京院長으로는 趙泰億(左相<1675-1758>), 趙文命(左相<1680-1732>), 沈壽賢(領相<1663-1736>), 李宗城(領相<1692-1759>), 尹東度(領相<1707-1768>), 李殷(領相<1722-1781>) 등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京院長의 추대는 이 시기에 鄕村士林들의 身分의 階層構造를 확고히 한다던지 政治狀況의 변동에 따른 士林들의 聯合, 協同 및 서원의 발전을 위한 이해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본다. 더우기 그것은 書院建立 時期(肅宗-英祖)에 걸쳐 나타난 京院長들이 모두 成氏의 後孫, 外孫, 또는 同族과의 緣故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⁴⁸⁾ 또 趙文命(左相)이 「勿溪書院 四大字親筆揭楯 院規二十條 院

41) 李樹建, 〈嶺南士林派의 形成〉 嶺南大學校 出版部 1979, P.48 참조

42) <昌寧成氏 八百年史>, (昌寧成氏門中所藏) 참조

43) <世德祠 營建 敦事錄> 勿溪書院 所藏

成氏門中 147名이 世德祠 建立에 참여하고 있으며 他姓은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

敦事錄의 記錄에 의하면 祠宇建立을 위한 開基有司, 材木有司, 庫舍有司 등의 院職名이 보인다.

44) <昌寧成氏 八百年史> 勿溪書院 院規 참조

侍中公外는 他書院에 配享된 바 있는 분에 限하여 配享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45) <肅宗實錄> 卷51, 肅宗38年 正月 壬辰 乙丑條

46) <昌寧成氏 文行列傳> 勿溪書院 所藏

47) <勿溪書院 院長案> (勿溪書院 所藏)에는 院長案 2冊, 院任案 1冊이 있다.

48) <勿溪書院 院長案>

趙泰億(左相)--[按本道時院中多士以斯文望請掌院教]

辛丑(1721)二月十六日.省墓後라고 記載되어있는데 趙泰億은 外孫으로 記錄되어 있다.

記一度製造」⁴⁹⁾이라 하여 院規 20條, 院記一度를 만든 것도 書院의 規격을 갖추어 가는 과정과 연결해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沈壽賢(領相) 院長時는 「院長吾旣以龜勉 以當朝名士中二員 請出京有司可也 一依指教郎 請校理李周鎮左郎金尙中 竝視院事」라⁵⁰⁾ 하여 京有司制를 두어 서원의 일을 원활히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나타나는 京有司制는 남계서원이나 기타 서원에서 나타나고있는 京有司와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본다. 그것은 원장의 업무를 校理나 左郎을 통해 執行한다는 의미일뿐 정치적 변화에 대응한다던지 또는 중앙정계와의 연결을 위해 京有司制를 별도로 설치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볼 때 勿溪書院은 門中の 先祖 가운데 高官 名臣이나 名儒, 忠臣, 烈士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自己家門의 사회적 지위와 권위를 누리며, 충분히 향촌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혈연집단으로서 상호 결속을 통해 향촌사회내에서 私的保障을 받고 있었다고 생각 할 수 있다.

특히 京院長들의 활동시기는 景宗-英祖 연간이었다. 이 시기는 老,小論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때로서 봉당정치로 기간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시기를 거치면서도 勿溪書院이 賜額받지 못한 이유는 현존하는 자료로서 밝히기 어렵지만 勿溪書院이 가지는 종족 집단적 성격에 연유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勿溪書院의 원임록에서는 鄉院長 1人, 有司 2人으로 院任이 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西人系 書院으로 분류된 서원의 院長任期가 終身職으로 나타난다면 勿溪書院의 院長 任期는 1년 미만에 머물고 있으며, 有司는 1년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이는 辛酉年(純祖 1: 1801)에 9명의 원장이 교체되고 있고, 壬戌年(純祖 2: 1802)에 5명의 원장이 交替하고 있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⁵¹⁾

院任錄(景宗 1年: 1721-高宗 5年: 1868)을 분석해 보면, 京院長은 英祖 48年(1772)까지 7~8명이 나타나며 그외의 시기에는 成氏門中の 鄉院長들이 담당하였으며 有司도 같은 형태였다. 그러나 昌寧을 중심으로 한 勿溪書院은 昌寧 土姓 및 在地土族들과 連繫되어야 했고 그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향촌사회에서의 鄉權을 장악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이는 院長案에 나오는 「進士成龜世成萬齡 乃道儒生員都永鼎等 聯名延請」⁵²⁾이라는 기록을 통해서 道儒林들이 勿溪書院의 經營에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즉 土姓으로서 曹, 河氏나, 成氏 外孫이나 傍系 流入 土族으로서 盧, 尹, 金, 李, 姜, 陽, 沈氏 등이 院長, 有司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으로는 鄉院長의 職役은 대부분 幼學이며 純祖朝에 縣監3명, 憲宗-哲宗朝에 主倅 5명 정도가 院長職을 맡고 있는 것을 보아도 알 수가 있다. 이는 門中組織에 기초하여 건립된 일반 書院, 祠宇들이 門中 의의 다른 組織이나, 타성의 儒林들에 의해 齋享行事가 이루어짐으로써 다른 儒林들과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自己門中の 權威를 확립할 수 있었으며, 또 鄉村社會에서의 영향력 행사가 가능하였던 일반 書院, 祠宇들이 갖고 있던 특성과도 일맥상통하고 있는 점이라 보아야겠다.

49) 《勿溪書院 院長案》 (勿溪書院 所藏) 참조

50) 《勿溪書院 院長案》

京院長으로서 京有司制의 實施를 勸獎하고 있다.

51) 《勿溪書院 院任錄》 참조

52) 《勿溪書院 院長案》 참조

이렇게 볼 때 勿溪書院의 원임조직은 濼溪書院을 비롯한 타 서원이 配享인물의 黨色에 따라 院任組織에 영향을 입고 있는 것과는 달리, 宗族, 後孫, 鄉士林 등을 중심으로 院任組織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조선후기 한 家門의 後孫들이 종족간의 結束과 相互紐帶를 유지하고 나아가 중앙권력과의 관계, 학문이나 문벌의 존귀를 중시하던 당시 향촌사회에서 명문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賢祖를 齋享했던 서원의 일면을 보여 주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것 같다. 이러한 점은 昌寧地域에서 동시대에 건립 운영되었던 光山書院, 淸溪書院의 원장을 勿溪書院 원장이 兼任 또는 再任한 사례를 통해서도 勿溪書院의 성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4. 光山書院

光山書院은 正祖19年(1795) 昌寧郡 遊漁面 光山里에 丙子胡亂 때 義兵을 모아 분전하였던 進士 楊暄의 忠義를 기리기 위해 光山祠를 건립하였는데, 그 뒤 光山書院으로 발전하였다. 大院君 때 撤毀되었다가 지금 같은 지역에 光山書堂으로서 書院 建物이 남아 있으며 楊氏後孫들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光山書院의 院任組織에 관한 자료는 <光山祠 任案錄> 一冊과 <光山書院 任案錄> 一冊이⁵³⁾ 있다. 光山書院의 원임조직의 특색은 初期 光山司의 任案錄에는 院長이 아닌 山長으로 표기되어 있고, 光山書院의 任安錄에는 院長으로 기록되어 있다. 조직의 형태는 院長(山長) 1人, 有司 2人 체제의 勿溪書院과 같으며 원장의 임기는 1年, 유사의 임기는 큰 변화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配享人物 楊暄에 관한 기록은 잘 나타나지 않고 丙子胡亂 때 義兵 활동을 한 내용이 昌寧郡誌에⁵⁴⁾ 간단히 소개되어 있다.

昌寧의 楊氏는 密陽 土姓(孫, 朴, 卞, 金, 曹, 楊)으로⁵⁵⁾ 나타나는데 昌寧 地域에서의 楊氏는 來姓으로서 18세기에 들어와서야 在地의 기반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시대에 나타나는 일반적인 院, 祠의 건립배경과 그 성격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18세기 鄉村에 있어서 來姓들이 일정한 經濟의 기반을 갖춘 후 그들의 유대관계와 서민들에 대한 그들의 優越한 지위를 保障받기 위해 院, 祠를 건립하고, 鄉村 支配層과의 交流에 참여함으로써 名門으로 행세할 수 있었던 당시 사회구조의 현실적 이해 관계에 의해 光山書院의 건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사례는 密陽 楊氏宗案에⁵⁶⁾ 나타난 87명의 楊氏가 주축이 되어 丙子胡亂 때 義兵을 모아 활약하였던 進士 楊暄를 追享하는 光山祠를 건립했다는 것과, 두번째 昌寧鄉案을⁵⁷⁾ 통해서 密陽 楊氏가 鄉村社會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다. 昌寧鄉案을 중심으로 昌寧 鄉村社會의 鄉權에 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3) 光山書院의 資料는 楊氏 宗門에 의해 所藏되고 있다.

54) <昌寧郡誌 學校誌> 참조

昌寧郡誌에는 楊宜가 아닌 楊洄으로 表記되어 있다.

55) 李樹建, <앞의 책> P.37 참조

昌寧郡誌에는 楊氏가 密陽 楊氏가 아닌 淸州楊氏로 나타나 있다.

56) <密陽 楊氏宗案> (光山書院 所藏) 참조

57) 이는 光山書院에 所藏되어 있다.

〈표 4〉 〈昌寧鄉案 姓氏別 統計〉 (宣祖 38年: 1600-純祖 15年: 1815)

姓 氏	成	盧	曹	河	楊	金	鄭	李	安	姜	張	孫	郭
鄉案登載 姓氏數	291	143	33	26	40	64	8	71	17	40	9	22	4
%	36	18	4	3	5	8	1	9	2	5	1	3	0.3

姓 氏	尹	白	裴	朴	計
鄉案登載 姓氏數	25	3	1	1	798
%	3.1	0.3	0.1	0.1	100

위 〈표 4〉에서 보면 土姓인 成氏가 17세기-19세기 初期의 昌寧지역의 鄉權을 장악한 主體였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에서 成氏와 같은 鉅族으로 발전하였던 曹氏는 嶺南學派의 2대 산맥을 형성하였던 曹植을 중심으로 三嘉, 金海, 晉州 등지로 그 세력이 확장됨으로⁵⁸⁾ 해서 昌寧 地域에서는 鄉勢가 약하게 나타난다. 成氏에 이어 두번째로 鄉案에 登載된 儒林의 數가 많은 盧氏는 18%를 차지하고 있다. 盧氏는 토성이 아닌 來姓으로 일찍부터 在地土族의 기반을 가졌던 家門으로 생각된다.⁵⁹⁾ 이것은 昌寧地域內에 盧善卿(司諫), 盧克弘을 배향하는 東山書院⁶⁰⁾ (純祖 己丑: 1829)과 盧沆, 盧弘彦을 배향하는 蘇谷書院이⁶¹⁾ 건립 운영되고 있음을 통해 이 가문의 在地의 기반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와 같은 鄉案의 姓氏別 통계가 나타내 주는 것은 楊氏一門의 鄉案 登載者數가 5%선에 머물고 있어 향촌사회에서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볼 때 楊氏宗門은 光山祠 建立과 함께 鄉村支配層과의 교류 및 향촌 재지사족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 것은 필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光山祠, 光山書院의 任案錄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光山祠와 光山書院의 任案錄 二冊을 하나로 묶어 보면 純祖 3年(1803)부터 高宗 3年(1866)까지의 院任을 파악할 수가 있다. 院長(山長 포함)의 數가 122名으로 나타나고 有司의 수가 164명으로 나타나는데, 楊氏門中 인사로서 원장이 된 數는 11명이며 有司는 19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宗門의 先賢을 奉事하면서도 院長(山長), 有司는 昌寧 儒林들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成氏와 盧氏에 의해 관장되고 심지어는 光山書院의 管理권마저도 勿溪

58) 李樹建, 《앞의 책》 P.49 참조

59) 盧氏는 慶州圈 安康縣의 土姓으로 나타난다; 李樹建, 《앞의 책》 P.49 참조

60) 東山書院은 昌寧郡 梨房面 東山里에 있으며 書院 建物은 있지만 資料는 없다.

61) 蘇谷書院은 昌寧郡 高岩面 牛川里에 齋室만 남아 있으며 盧氏門中의 盧仁述氏가 管理하고 있으나 資料는 없다.

書院과 복합적인 관계에 놓여 있었던 것 같다.

이런 면모는 任案錄의 기록에서도 간혹 成氏가 아닌 他姓에 의해서 院長(山長)職을 맡는다 해도 모두 勿溪書院 院長을 歷任한 者이거나 같은 시대에 重複하여 院長을 겸임하고 있는자가 122명의 院長 중 100명에 이르고 있음을 볼 때, 이것이 단순한 예우 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 같다.⁶²⁾ 이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볼 때 楊氏 一門들은 光山書院을 통해 鄉村에서의 안정된 세력기반과 在地的 基盤을 확보해 갈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즉 光山書院 院任案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勿溪書院 院長을 역임했던 獻納(孫錫社) 承旨(成大進), 承旨(金大坤), 兵曹參議(金相稷), 地碎(金永孚), 李容在, 黃種奭, 沈宜洵, 李豐在) 등이 모두 光山書院의 院長을 역임하면서부터 光山書院이 昌寧 지방에서 鄉村社會의 儒林勢力들의 활동처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는 昌寧郡 光山里 光山書堂(現存建物) 뒷편에 있는 進士 楊暄의 碑文을 許穆이 직접 써 주고 갔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⁶³⁾ 이렇게 볼 때 조선후기 昌寧의 鄉權은 勿溪書院을 중심으로 하여 光山書院까지 함께 경영해 왔던 鄉儒林들에 의해 움직여져 갔다고 생각할 수 있다.

5. 淸溪書院

淸溪書院은⁶⁴⁾ 明宗 19年(1564)에 李希顔을 主壁으로 하여 李大期, 全致遠을 配享한 서원으로서 陝川郡 栗谷面 內川里에 건립되었다. 淸溪書院의 배향인물인 黃江 李希顔 (1504-1559)의 本貫은 陝川 草溪이며, 1554年(明宗 9年)에 高靈縣監을 지냈다.⁶⁵⁾

《草溪郡誌》에 「與南冥曹植松溪申季誠 爲道義交」, 「南冥選碣文」⁶⁶⁾ 이라는 기록을 통해 볼 때 南冥과 동시대에 같이 활동한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또 配享人物인 李大期 (1550-1628)의 碑文에 「年十六文理大通 就學於崔守愚堂 乃出入南冥曹先生之門 蓋先生與黃江道義交也」라는⁶⁷⁾ 기록을 통해서 李大期の 黃江과 南冥과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全致遠(1519-1589)도 같은 책의 「受業於黃江李希顔 希顔歎曰 己知道矣 嘗到寒岡鄭述南冥曹植示曰 此人將不在吾弟子之列矣」라는⁶⁸⁾ 기록은 全致遠과 李希顔의 관계와 그가 南冥 문도로서 활동하였음을 나타내 주고 있다. 또한 李大期和 全致遠은 임란 때 의병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기도하다. 합

62) 光山書院의 院任錄을 分析해 보면 勿溪書院의 院長과 有司들이 重複 또는 再任으로 光山書院의 院任을 맡고 있다.

63) 光山書院 建物の 뒷편에는 許穆이 지은 碑石이 남아 있다.

64) 淸溪書院은 朝鮮時代에는 草溪縣에 所在하였다. 그러나 現在의 行政區域으로는 陝川郡 栗谷面에 屬한다.

65) 《慶尙南道 輿地集成》 草溪郡篇 참조

66) 주) 65을 참조

67) 《慶尙南道 輿地集成》 草溪郡篇 碑板 참조

68) 《慶尙南道 輿地集成》 本朝人物考를 참조

친 李氏는 高麗 初期부터 族勢가 강성하여 이후 在京勢力과 在地士族으로 분화되어 나갔다.⁶⁹⁾

특히 이 지역에서는 일찍부터 金宗直이 善山, 密陽, 咸陽 등지를 왕래하였고, 金宏弼은 冶爐縣에 久居하면서 鄭汝昌, 金駟孫 등과 자주 陝川地方을 드나들어 많은 士林들이 배출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보면 己卯, 戊午士禍를 거치면서 士林들의 희생이 커지는 시기에 退溪 李滉, 南冥 曹植의 학문이 뿌리를 내렸으며 사람의 수도 증대되어 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학문의 축적과 사람의 확대는 中宗 말년부터 나타나는 先賢 奉事를 위주로 한 書院의 발달과 함께 宣祖 때에 이르러 사람계열에 의한 정치의 주도라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대체로 學緣으로 맺어지는 성리학 체계 내에서 淸溪書院도 각 門中(특히 南冥文徒)들이 중심이 되어 건립된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내용은 淸溪書院의 院任 組織에 관한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자료는 孝宗 4年(1653)에 작성된 院任案 一冊이다.⁷⁰⁾ 이 院任案을 보면 거주지가 합천으로 나타나는 姜翼文(司諫: 1568-?)이 처음 원장으로 나타나는데, 姜翼文은 1609년(光海君 1年)에 禮曹左郎, 正言, 獻納을 역임하다가, 癸丑獄事(1614) 때 사직하였으며 1618년에 귀양갔으며, 1631(仁祖 9年) 복직되었으나 사직하고 고향에서 말년을 보냈다고 한다.⁷¹⁾

姜翼文의 院長 재임은 職役을 가진 시기를 고려한다면 光海君 초반이 된다. 그렇다면 淸溪書院의 원임 안은 明宗 19년부터 宣祖까지의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셈이다. 특히 姜翼文은 南冥系의 鄭仁弘이 집권하고 있던 光海君朝에 일어난 癸丑獄事 때 사임하였음은 남명문도를 배향하는 淸溪書院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실이다.

즉 淸溪書院은 配享人物의 성격과 관련하여 본다면 南冥문도들에 의해 서원의 건립이 주도되었다고 생각될 수 있으나 서원의 운영은 院任案에 나타난 원장들의 성격을 통해서는 볼 때 남명문도들에 의해 書院의 經營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중앙 정치권의 변화와 무관할 수 있었던 在地士族層인 道儒林, 鄉儒林에 의해 運營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職役이 표기된 院長을 중심으로 院任案을 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5〉 〈淸溪書院 院任案〉 (職役이 표기된 院長)

年代	院長	職役	居住地	特記事項
광해군 1년 (1609)	姜翼文	司諫	陝川	
	曹珽立	牧使	陝川	
	金峻立	進士	---	
	金是榮	郡守	星州	

69) 李樹建, <앞의 책> P.108 참조

70) <淸溪書院 院任案> (黃江亭 李氏門中所藏) 참조

71) <慶尙南道地理志> 陝川郡篇 참조

	曹以章	---	---	院長(1人), 有司(2人)이 고정화 된다.
	郭壽龜	左朗	玄風	
	李玄齡	縣令	星州	
	權繼亨	進士	丹城	權院長後, 職役없는 院長(鄉儒林) 85名
仁祖 7年	俞彥埈	郡守	京	
	李重協	"	"	
	趙徵鑑	"	"	
	李勉大	"	"	
	金善永	"	"	
	鄭 瑛	"	善山	
	朴慶九	前正言	高靈	
	金奎燦	前郡守	玄風	
	金相稷	前司書	高靈	1846年 兵曹參議로서 勿溪書院長
	李原祚	判書	星州	1857年 勿溪書院 院長시 職役은 參判
	成大進	前承旨	昌寧	1840年 承旨로서 勿溪書院 院長 역임

우선 <표 5>에서 보면 美翼文부터 權繼亨까지의 院長 재임 연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대체로 美翼文이 宣祖 39年(1605)에 文科及第하여 光海君 1年(1609)에 관직으로 나아가 있던 시기에 院長職을 재임했고, 曹廷立도 光海君 4年(1612)에 관직에 나아갔고, 金峻立이 進士가 된 것도 光海君朝라 본다면⁷²⁾ 光海君 年間に 現職官僚들이 원장직을 재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濫溪書院이나 德川書院과 같이 配享人物의 성격이나 봉당정치와 관련되어 나타난 결과로 보기 힘들다. 대신 이는 慶南一圓의 서원이 가지는 일반적 성격으로서 16세기까지 奉事者의 後孫이 원장에 임명되는 것을 피하고 鄉中 인사나 道內 인사로 임명된 경우를 생각한다면, 광해군 때에 나타난 司諫, 牧使, 左郎, 縣令 등 현직관료의 院長 재임은 鄉村社會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中央 또는 地方官과의 연결이 필수적이었다는 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위 <표 5>에서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星州 중심의 玄風, 善山, 高靈, 昌寧 居住의 有力士族이 원장으로 부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草溪地域 在地士族들의 中央政界 進出이 미약하여 道儒勸出 또는

72) <淸溪書院 院任案> 을 참조

勸請의 형식을 통해서 나타난 현상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權繼亨 院長後 在地士族들에 의해 院長職이 계승되었는데 그 재임 평균 임기가 一期享祀로 줄어들어 약 80여명의 院長에 의해 자주 교체되었다는 점이다.⁷³⁾

仁祖朝에 들어서면 現職 郡守가 5명이나 지속적으로 원장직을 역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⁷⁴⁾ 이는 一 鄕大夫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中央集權的 官僚制 사회에 있어 官職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즉 草溪縣의 儒林들이 중앙정계에 고급관료로 진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한다면 人脈, 學脈, 地緣을 통해 중앙 또는 지방관과의 관계를 정립해 나가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淸溪書院의 運營과 管理라는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위의 설명들이 이해될 수 있을 것 같다. 현재 陝川郡 栗谷面 內川里에는 淸溪書院이 복원되어 全氏 後孫들에 의해 全致遠이 享祀되고 있으며, 陝川郡 黃江邊의 黃江亭에는 李氏 後孫들이 李希顔을 享祀하고 있다. 특기할 것은 필자가 두 곳을 방문하였을 때 淸溪書院 현판은 黃江亭에 보관되어 있고 다른 資料들은 淸溪書院에 보관되어 있었다. 이는 위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17세기 후반 權繼亨 院長 이후 配享人物의 後孫들이 원장으로 진출함이 점차 확산되면서 在地士族 및 후손들의 鄕權 장악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姜翼文 院長부터 郡守 李重協 院長 재임까지 鄕士林 院長의 수는 94名이며, 이 중에서는 全氏가 20名, 安氏가 17名, 盧氏가 15名, 柳氏가 12名, 李氏가 10名, 金氏가 8名, 기타가 12名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鄕院長의 分布는 淸溪書院을 중심으로 한 재지사족들의 鄕村에서의 세력분포로 파악될 수 있다. 즉, 18세기 이후부터는 서원이 이전까지의 鄕村共同體의 성격에서 벗어나 점차 家門中心의 서원으로 성격이 轉換되고, 19세기에 오면 서원의 경우 氏族 門中 상호간의 파벌싸움으로 더욱 細分化되어 서원 내부에서의 主導權 문제를 두고서 대립하다가 大院君 廢絶을 기화로 分立되어 나간 것이라 생각된다.

Ⅲ. 맺 음 말

조선후기의 書院에서는 藏修의 기능보다 先賢 奉事의 기능이 앞섰다. 이러한 현상은 朋黨정치로부터 정치체제가 一黨 중심으로 변화해 가면서 정치참여의 폭이 줄어들어 따라 執權兩班과 土豪兩班으로 분화되어 갔으며 서원의 기능도 점차 변모하여 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朋黨政治로부터 배제된 黨派들은 自派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해야 했고 또 執權黨派에서도 自派의 정치적 입장을 강화해야만 했다.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 鄕村士林들의 公論을 집결시켜 줄 수 있는 서원이었기 때문에 서원의 機能과 組織의 변모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후기의 서원은 朋黨政治의 변화와 함께 나타

73) <慶尙南道 輿地集成> 草溪郡 人物篇 참조

人物篇에도 鄕院長의 이름이 나오나 모두 官職이 없다.

74) 年代計算은 郡守가 赴任해 온 연도와 이임한 연도를 가지고 計算한 것임.

났으며, 서원의 經營과 직결되는 院任組織의 분화는 당연한 시대적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中央政治의 변화와 관계하여 鄉村士林들의 在地的 기반의 확대와 향촌에서의 지배권 장악을 위해 서원이 이제 藏修와 先賢奉事의 기능을 초월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게 하였다. 즉 향촌 사람들은 향촌공동체에 참여함에 따라 특권적 지배신분으로서 자리하기 위해 先祖 가운데 高官, 名臣, 忠臣, 烈士들을 配享하여 자기 家門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는 노력으로 서원을 세움에 서원의 數는 늘어갔다.

본고에서는 지금까지 賜額되어 오랜 기간동안 충분한 資料를 보관하고 있었던 有名書院의 연구에서 밝혀진 院任組織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現 慶南一圓의 서원들의 원임조직 변화와 鄉村士族들의 원임 장악 실태에 관해 考察해 보려했다. 이를 통해 우선 地域別로 서원의 配享人物과 院任組織을 통해서 그 서원이 차지하고 있었던 鄉村社會에서의 在地的 地位를 확인하였다. 現 慶尙南道를 地域別로 구분할 수 있다면 慶州圈(蔚山, 彥陽, 梁山, 昌寧), 尙州圈(陝川, 草溪), 晉州圈(咸安, 咸陽, 漆原)으로 나눌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晉州圈의 德川書院과 漣溪書院의 원임조직을 분석하여 조선후기 朋黨政治 과정에서 나타나는 서원의 변화과정을 고찰하였다. 德川書院은 南冥선생을 配享하였기 때문에 南冥문도들의 활동 근거지가 되었으며, 남명문도를 대표하는 鄭仁弘을 중심으로 晉州圈의 실질적인 鄉村支配機構로서 역할을 하였다. 仁祖反正 후 鄭仁弘의 몰락과 함께 나타난 德川書院의 변화는 그 院任組織에도 나타났으니, 서원의 經營과 鄉村士林들의 鄉村內에서의 自救策의 일환으로 중앙정계와 연결되어 親 南人系 老論官僚들이 원장으로 부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德川書院은 타 서원과 달리 원임조직에서는 변화가 보이지 않고 院長-有司 체제를 그대로 지켜왔던 점은 특이한 점이라 할 수 있다.

다음 漣溪書院은 鄭汝昌, 鄭蘊을 配享한 서원으로 역시 남명문도들에 의해 건립된 서원이다. 漣溪書院은 己丑獄과 仁祖反正後 서원의 원임조직이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중앙 정계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동일한 晉州圈이면서도 德川書院과 漣溪書院의 변화가 대조적으로 나타난 것은 배향인물의 성격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漣溪書院의 配享人物인 鄭蘊은 鄭仁弘, 鄭述의 文人이지만 光海君朝에 殺弟事件의 부당함을 호소하다가 제주도로 귀양을 간 인물이다. 仁祖反正 후 복직되어 병자호란 때 西人系인 金尙憲과 함께 활동하였다. 이러한 연루로 본다면 인조반정 후 漣溪書院의 院任組織이 서인계 서원의 원임조직 형태로 변모하고 있음은 配享人物의 성격과 관련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勿溪書院과 光山書院은 門中書院의 대표적 서원이면서도 慶州圈의 鄉村公論을 주도했던 서원으로 파악된다. 특히 勿溪書院은 宗族集團의 相互結束과 相互保障을 위해 成氏門中の 先賢들을 配享하여 문벌의 권위를 확립해 나가고 있었다. 昌寧의 土姓으로 鉅族이었던 成氏는 조선후기 사족으로 발전하면서 광범위한 종족관계를 통해 慶州圈과 晉州圈에 까지도 그 勢力 확산해 가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光山書院도 勿溪書院과 같이 楊氏門中에서 건립한 서원이었다. 한편 楊氏는 창녕지역에서 일찍 在地的 基盤을 형성하지 못하였던 종족으로서 光山書院의 건립을 통해 昌寧 地域社會에서 자기 家門의 지위를 정립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淸溪書院은 配享人物이 南冥 문도들이었으며, 그 건립과 경영도 南冥 문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仁祖反正 후 이 서원의 경영형태는 鄉士林, 道士林들에 의해 주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陝川을 중심으로 한 鄉士林들이 수년간 院長으로 재임하였던 사실과 配享人物의 後孫들이 鄉權의 主導權 문제를 두고 심하게 다투었던 서원으로서 타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던 향권 주도권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 서원으로 파악되었다.

이상의 연구에서 경상남도 서원의 원임조직은 서원의 配享人物이 어떤 黨色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院任組織의 형태가 일률적으로 西人系, 北人系, 南人系 서원으로 구분지워질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하면 서원의 院任組織은 地域의 特性과 서원 자체가 가지고 있는 特性에 따라 組織體系가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고에서 고찰 대상이 된 德川, 濼溪, 淸溪書院은 서원의 經營과 院任組織의 형태가 중앙정치 構造의 변화에 따라 변모하였다면, 勿溪書院 光山書院은 종족집단의 문중서원으로 그 院任組織의 변화가 德川, 濼溪서원과 같은 동일한 경남 지역이지만 다소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고에서 고찰하려는 것은 現 慶尙南道 地域(慶州圈, 尙州圈, 晉州圈)에 소재하는 서원의 院任組織의 변화를 통해서 중앙 정치구조의 변화와 관련한 鄉村社會의 변화 양상을 확인하려는 것이며, 또 서원의 院生組織과 尋院錄분석을 통해서 조선후기 사회구조의 변모과정을 파악하고자 했다. 그러나 본고는 여기서 이를 다 다루지 못하였다. 이는 다음 논고에서 다룰 예정이다.

